



솔로몬 소식 린치버그에서



15-1호, 통권 30호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저희 가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저는 이곳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4번째 학기
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
재 공부중인 목회학 석사
(Mdiv) 프로그램 자체가 워
낙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라, 매학기 최
대로 들을수 있는 5과목씩
계속해서 듣고 있어 이번학
기로 전반부를 넘어 후반부
로 진입하였습니다. 학기중
에는 해야할 과제가 많아

매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
어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
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
니다.



매주 금요일 다운타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전도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블락파티(Block Par-
ty)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특별 전도행사때 사진입니다. 복음으로 헌신된
이곳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서 전해온 투루라나 교회 소식입니다.

얼마전 솔로몬군도에서 동역했던 벤 형제
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벤 형
제는 지난해 부터 투루라나 사역에 동역했
던 솔로몬군도 현지 교단인 SSEC교단 예
하에 수도인 호니아라 시내에 위치한 2번
째로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게 되었습

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투루라나교
회의 성도들을 본인의 교회로 초청해 함
께 전도행사를 했고, 투루라나교회가 계
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편지 원문이 다음장에 있습니다.

벤 형제로 부터 온 편지 원문입니다.



산 위에서 본 투루라나 전경

*"I have some great news for you!
The Tururana IDI Church is growing a lot and many souls are coming into the kingdom of God. Your labor in the Lord here in the Solomon Islands is not in vain; the seed you planted have grown and now began to bear fruit!
Last year the Tururana IDI congregation came for Outreach to my Local Church, I invited them and amazingly 60 men, women, youths and children came, we have a wonderful time of fellowship, they sleep one night and return the next day.
Please pray for us, this month on the 28th-29th March 2015, I will be visiting them and will baptize all the new converts that have been prepared for baptism, and then they will be going over for Easter mission to Malaita Province.
Brother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You have been God's Instrument to revive God's Kingdom work in this place!
I want to visit our friends in Tururana and another new village about 500 people not yet hear the Gospel message, some hour walk from Tururana up along the river."*

해석)

반가운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투루라나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안에서 여기 솔로몬 군도에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당신이 심은 씨앗은 자라서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나는 투루라나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선교를 위해 초청했고 60여명의 어른과 청년, 어린이가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았고, 다음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3월 28-29일 투루라나를 방문해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회심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레이타섬으로 부활절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도구였습니다. 나는 투루라나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투루라나에서 강을 따라 몇시간 떨어진 복음을 듣지 못한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새로운 마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기

도

제

목

1.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 있도록.
2. 예찬이와 예담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자라날수 있도록.
3. 여름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기간 지치지 않고, 바쁜일정속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 가운데 지체가 중만하도록.
4. 가을학기를 위한 재정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5.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수 있도록.

<솔로몬 군도를 위하여>

6. 투루라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7. 투루라나 교회와 협력하는 벤 형제의 교회(Kai-bia Church)가 투루라나뿐 아니라 수도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내에 미전도 부족 선교에 더욱 헌신할수 있도록.
8. 동역의 손길이 늘어나도록.